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바뀌는 제도

‘하얀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 2020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었을까?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 정보만 쏙쏙 골라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실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2020년부터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 요소를 강화했다.

- ① 색 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 ② 돌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카드 형태로 발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전부 동일하다.

보안성과 전통성을 살린 차세대 전자여권

2020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표지는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고, 표지 이면과 안쪽면(사증면)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했다. 얼굴과 이미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부분은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꾸고, 얼굴 이미지와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어 여권의 보안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형마트 자유포장대, 포장용 테이프·끈 제공 중단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의 제공이 2020년 1월 1일부터 중단됐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부와 대형마트의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당초에 종이박스와 테이프, 끈 모두를 없애려던 계획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테이프와 끈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0년 초부터 시행된다. 2017년 4월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 일환으로 소비자가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실업자 및 구직자, 재직자 등 많은 사람이 취업을 위해 이용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변경된다. 더불어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 두 형태로 구분해 운영하던 시스템이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약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금이 약 200만 원 증가한 약 300~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